

전주음식 명인 · 명소 등 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2015. 12. 7(월) ~ 14(월) 10:00 ~ 15:30

□ 장 소: (재)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

□ 회의진행: 위원장 조봉업(부시장)

□ 사 회 자: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 참 석 자: 10명

– 위원장 :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

– 위 원 : 김년임(식품명인)

– 위 원 : 김동규(뉴스원 부장)

– 위 원 : 백영규(전주시 의원)

– 위 원 : 유혜숙(전북환경운동 연합대표)

– 위 원 : 민계홍(전주대학교 외식산업학과 교수)

– 위 원 : 서향숙(전주 KBS 방송국 PD)

– 위 원 : 정순례(한국여성소비자 연합 전주 · 전북지회장)

– 위 원 : 정철교(한국외식업 증양회 전북지회장)

– 위 원 : 정태현(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 주요내용

- 식순 안내 및 위원소개 ----- 《사회자, 과장》
- 인사말씀 ----- 《위원장, 부시장》
- 제안설명 및 진행 ----- 《위원장, 부시장》
- 개요설명 및 안내 ----- 《사회자, 과장》

□ 진 행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한문화 지원사무소장 김종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진행순서는 식순에 의해 진행하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회 위원소개, 위원장님 인사말씀, 개요설명과 명인·명소·명가에 한해 서류심사 후에, 3층 시루방으로 내려가셔서 명인에 대한 조리심사를 하시고, 결과발표,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 조봉업 위원장님 이십니다.

- 김년임 위원이십니다.

~

이어서 위원장님의 일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인사말씀 ~

▶ 사회자 : 다음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사회자 : 지금부터는 위원장님 주제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 “그럼 오늘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조리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왜냐면 제가 현안업무가 많다보니 창의업소에 대한 평가를 세세히

못할 것 같으니, 제가 참석을 못할때에는 부위원장님이 역할을 대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 서향숙 피디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고 오랜 연륜도 있으시고 하니 여러모로 가능하신분이라 생각합니다

▶서향숙 위원 : 그건 제가 수락이 어렵습니다.

미진한 점도 많고 하여 다른 위원님으로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 서향숙 위원 : 유혜숙위원님을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 그래요 그럼, 유혜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재시 의사진행 등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들 : 다같이 박수로 부위원장 선출

▶ 사회자 : 오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인 명가, 명인, 명소에 대해서만 서류심사를 ~

참고로, 명가 조리심사는 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행 후 끝나면 명소와 음식창의 업소의 현장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음식창업업소에 대한 평가는, 서류심사와 조리심사 및 업소평가로 이어지므로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 자 이제 서류심사를 실시하겠는데요, 위원님들 홀더에 서류심사에 따른 신청자 서류제출 현황 및 평가 지침등을 간략히 기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처음 실시하는 명가부터 심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가 평가에 대한 부연설명을 전문가인 민계홍 교수님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 민계홍 위원 : 네 “명가란, 3대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은 가문내림 음식인을 말하며, 신청서류의 인후증명이나 제적등본 외에 3대이상을 증명하는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명가 신청자에게 듣고 답하는 과정으로 진행 후에, 서면심사를 실시하고자, 명가신청자 3분이 대기실에 대기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평가는 농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식품명인의 전통 식품 분야 평가시 실시하는 방법으로 그 기준을 따르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자 그럼 명가신청자를 접수순서대로 입회시켜주세요

▶ 사회자 : 그럼 명가 접수번호 1번 함정희씨 들어오세요 ~

▶ 위원장 : 자 그럼 함정희씨 들어오셨으니 위원님들께서 여쭙보
시죠

▶ 서향숙 위원 : 명가는 3대라고 말을 하는데 시할머니 모시고 사
셨다고 서류에 있는데 몇 년을 사셨나요?

▷ 함정희씨 : 제가 분가 할때까지 한 3년 살았습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저, 시댁 작은아버님 부부까지 같이 함께 1대 2대와 함께
살았습니다.

▶ 서향숙 위원 : 비법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

▷ 함정희씨 : 솔직히 저는 결혼전에 직장만 다니다가 시집을
와서 음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보니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인 상할머니께서 음식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결혼초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청국장에 양념을 해서 밥상에 올려
놓고 사시사철 드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청국장을 끓
여서 먹는거지 생으로 드시길래 저도 함 먹어보니 맛있드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게 되었는데 상할머니께서는 생청국자이 없으면 밥을 안드셨구요. 생청국장에 마늘과 새우 양념을 해서 항상 드셨고, 저도 여름이면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아주 맛있어서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 2001년에 함씨네 토종콩 종합식품 시작전에 함박식품, 영진식품이 있는데 그건 다른분이 하셨나요 ?

▷ 함정희씨 : 네 그건 시댁에서 74년에 수입콩으로 하고 오시다가 저희 남편이 가업으로 물려받으면서 제이름을 걸고 상호 및 국내산으로 바꿨습니다.

▶ 김동규 위원 : 그럼 아까 말씀하신 생청국장을 그 전주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시고 계신건가요?

▷ 함정희씨 : 네. 계속해서 한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및 시할머니께서 장수를 하셨고, 돌아가시기 3일전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청국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느날 청국장이 좋은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 생청국장을 만들어 유통판매를 본격적으로 한건 2011년부터 국산콩으로 시작했습니다.

▶ 정순례 위원 : 생청국장은 일반청국장과 어떻게 다른니까?

▷ 함정희씨 : 네 생청국장은 발효기간이나 숙성과정등을 생략하면 효과가 전혀 없어 저는 지금도 시 할머니 때부터 배운대로 해오고 있으며, 생청국장을 끓이면 짜개가 됩니다. 단점이 유통기한이 7일로 짧아 마늘과 청국장을 환으로 만들어 유통기한을 2년까지로 개발 및 특허를 내서 유통판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 정태현 위원 : 사진을 제출하셨는데 이 사진에 3대가 같이 있나요?

▷ 함정희씨 :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주머님입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자 : 다음은 명가 접수번호 2번 안명자씨 들어오세요 ~

▶ 위원장 : 자 두번째 안명자 선생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숙 위원 : 다른분에 비하여 수상 내역이 적으신대요. 내가 최고다 라고 가장 자신있는 부분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죠

▷ 안명자씨 : 제가 김치로 사업자 등록을 낸지는 14년이 지났지만

김치관련 일을 하고 알리는 일 등을 하면서 김치관련 대회에 수상을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에게 들어야 하며, 김치관련 대회란 정확한 규정도 없는 대회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에게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금 많은 김치대회가 있으나 먼저 살아오신 어머님들이 먼저 상을 드려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므로 아직 제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음 해주시죠?

▶ 백영규 위원 : 서류 상 3대 증명서를 보면 1대와 2대사이 연계가 없는거 같기도 하고, 또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 받은것도 있나요 ?

▷ 안명자씨 : 네 음식맛을 익힌 것은 결혼전까지는 친정어머니께 전수 받았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분은 어머님이시고 그 위에 할머니셨고,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 김치를 담았습니다. 제가 명가 신청을 할 때 고민을 하였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맞을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주저없이 남편에게 나 전주이씨 희룡공파 제16대 손부로 지금의 나를 말한다면, 결혼전에 엄마에게 배웠던 김치는 주부로서 김치를 담았고, 외부에 알리는 일을 하거나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남편 이철량 손부로 말하고 이족부로 나가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 서향숙 위원 : 지금은 각 지역의 내노라 하는 김치명인들도 많

고 손맛을 이어져 오는 사람들도 많은가운데서, 혼자 터득하고 남편을 위해 김치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명자 선생님의 손맛은 어떻게 다르고 특징은 무엇인지 ?

▷ 안명자씨 : 지금 저의 김치의 특징을 말씀 드리면 될까요? 저의 김치의 특징 중 맛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이 맛있게 먹은 김치 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맛, 즉 보편적인 맛으로 가장 정직한 김치의 올바른 길로 복잡하지 않는 것이며 전주의 자랑입니다. 또한 저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설명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맛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서 표준화 시켜서 누구나 자기 김치로 레시피 할 수 있는 김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백영규 위원 : 특허를 받으셨다고 있는데요, 친정어머님께서 물려받으신건지 아님 본인이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건지요?

▷ 안명자씨 : 고추장은 친정 엄마쪽에서 영향을 받았고, 김치는 시어머님에게 다 영향을 받았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 네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 안녕하세요? 명가는 3대가 이어왔느냐 아니냐 하는거잔아요 ? 그런데 2대까지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1대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안명자씨 : 네 저는 1대 할머니는 본적은 없고, 저는 23살에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16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61세에 돌아가실때까지 시할머님이 전수를 해주셨다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걸 듣고 연구하고 응용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3대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 김치란 보편적인 맛으로 각 가정마다 맛과 입맛 등이 다르게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명자님의 김치를 명가로 신청하셨다면 특허를 받은것도 있고, 그렇다면 선생님의 김치를 전주의 대표김치로 하고 싶다면 나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특화되어 있다거나 대표적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부분을 설명 해 주시죠?

▷ 안명자씨 : 저의 김치의 특화부분은 김치에 5대 영향과 한국민의 정서 및 우주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맛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낄수 있고, 옛날 우리 국민들이 못살 때 먹었던 맛있는 김치를 단순하게 레시피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고 특허를 내는 것이 저의 김치의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안명자 선생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번호 불러주세요

▶ 사회자 : 그럼 접수번호 3번 유홍림씨 들어오세요 ~

▶ 부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 유니온사 및 태극산업 등 이름이 바뀌었나요?

▷ 유홍림씨 : 네 처음에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이바지 제품 등으로 할머니가 선물하시던 것을 집에서 내림음식이 없어졌을 때 아버지께서 할머니와 함께 사업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유니온사에서 태극산업사로 변경하셨고 제가 이어받으면서 태극푸드로 변경하였습니다.

▶ 김동규 위원 : 외국에도 지사가 있습니까 ?

▷ 유홍림씨 : 네 싱가포르와 파리에 있으며, 대사관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서향숙 위원 : 태극푸드의 한과는 전국에 있는 한과와 다른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유홍림씨 : 저의 어머니께서 한과는 포장보다는 내실에 풍성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내용이 풍성하며, 계약재배로 찹쌀, 깨 등을 국내산으로 지금까지 합니다. 우체국 판매 1호로 경상도에서 주문이 가장 많습니다.

▶ 서향숙 위원 : 타래과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 유홍림씨 : 매작과에 해당되며, 제사상에는 올라가지 않으며, 다

과상이나 이바지 식품입니다. 손이 많이 가서 수작업만 가능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타래과를 가장 많이 해본 음식이라 자신있는 부분이라 신청하였습니다.

▶ 정태현 위원 :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 유홍림씨 : 외국에서 많이 경험해봐서 전통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아이들이 지금 저를 다 돕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자 이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명가서류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층에 명인 조리가 상할 수 있으니 명인 조리심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명가 서류심사를 마치고 평가서를 주신후에 3층에서 명인 조리심사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명인 및 명소 서류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본 명인에 대한 조리심사는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다시 4층회의장으로 올라가셔서 명인과 명소에 대한 서류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명인조림심사 ~

▶ 부위원장 : 자 이제 다시 명인과 명소에 대한 서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책상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명인·명소 서류심사 ~

▶ 부위원장 : 그럼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목요일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명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조리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분야가 많고 신청자가 많다보니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12월 10일(목) 14:00 ~

▶ 부위원장 : 명가 조리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자 : 위원님들은 명가조리심사 마치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 이어서 창의업소와 명소 현장심사를 위하여 업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자 : 오늘 명소와 창의업소 심사 평가서를 마무리 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2월 14일(월) 10:00 ~

▶ 부위원장 : 자 오늘이 마지막날로 창의업소 8개업소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회자 : 오늘 심사가 다 끝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집계표 결과를 말씀하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 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인은 총 6명이 선정되었으며, 돌솥밥 임복주, 비빔밥 박병학, 한정식 박영자, 전주백반 우순덕, 폐백음식 신복자, 한정식 유인자이며, 명가는 생청국장 함정희, 한과 타래과 유홍림이고, 명소는 한국집 주순옥씨가 선정되었습니다.

꼭 되어야 할 분들이 골고루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업소는 우리 전주시 맛집 업소로 다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들 : 네

▶ 부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결과 서류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전주음식 명인·명소 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심의 의결자료 1부. 끝.